

# 줄어드는 은행점포...광주·전남 금융접근성 최악

### 2019년 305개서 29개 감소...디지털 서비스 취약한 고령자 불편 전국 5년간 1189개 폐점...이복현 "금융접근권 보장 책무 고민해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서비스 질 향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 및 고령화 심화 등으로 모바일·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에도 취약한 상황에서 지역 소재 은행 점포 10개 중 1개가 문을 닫는 열악한 금융 환경을 감수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은행 점포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276개로, 지난 2019년(305개) 대비 29개(9.5%) 감소했다.

광주·전남에서 지난 5년 간 폐점한 은행 점포는

대부분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소재 4대은행 점포 수는 지난 2019년 96개에서 올해 6월 말 73개로 23개 줄었다.

지역 소재 점포 중 폐점 점포의 79%가 4대은행 점포였던 셈이다.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지역에서는 4대은행 점포가 한 곳도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대표 지역은행인 광주은행도 지난 5년간 104개에서 103개로 1곳이 줄었고, 같은 기간 농업 점포 3곳이 문을 닫았다.

광주·전남 뿐 아니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지난 달 말 기준 5690개로, 지난 5년 간 1189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708개, 481개가 폐점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26.3%로 가장 많이 폐점했고, 우리은행(24%), 신한은행(22.9%), 하나은행(18.8%) 등 전체 폐쇄 점포의 69%를 4대은행 점포가 차지했다.

특히 고령자 등 금융 접근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해왔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지난달 말 기준 2만7157대로 5년 새 9307개(2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은행들이 점포 수를 줄이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에 잇따른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등으로 적자점포가 대폭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점포 수 축소를 통한 운영비 감축 등 비용 효율화에 나서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지역 크기와 인구 분포 대비 은행 점포 수가 기존에도 적었는데, 최근 5

년간 10% 가까이 점포 수가 감소한 데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최근 국내 은행 점포 수가 급격히 감소한 점에 대해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보장 책무를 잘 지켰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 환영사를 통해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과 비용 효율화에만 집중하면서 물리적인 점포 등은 축소하고 있다"며 "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자, 장애인, 비도시 거주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인구 10만명 당은

행 점포 수가 1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치인 15.5개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점을 들어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으로 은행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동점포 등 기존 점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설치에 대한 협의절차 및 비용분담원칙 등에 대한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인공지능(AI) 점포 등 은행권의 점포운영전략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산업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것이다"며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금융당국이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전남 종부세 납부 8736명... 지난해보다 343명 늘었다

### 과세액 광주 351억·전남 144억 전국 4만여명 늘어난 46만277명

광주·전남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87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도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으로,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광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611명에서 122명 (0.2%) 늘어난 4733명, 전남은 221명 (2.9% 늘어난 40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과세액은 광주의 경우 전년보다 23.1% 증가한 351억원, 전남은 144억원 (15.3% ↑)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41만 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 (11.6%) 늘었다.

종부세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8년 39만 3000명→2019년 51만 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 1000명→2022년 120만명 안팎까지 불어났

지만 지난해 큰 폭 줄었다.

세액은 작년보다 1261억원 (8.5%) 늘어난 1조 6122억원이다.

광주는, 전남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00명 (0.6%) 감소한 6만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약 1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인원은 두자릿수대 늘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 1674명 (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 (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 (13.4%)·서울 (13.2%)·경기 (13.0%)·강원 (10.3%) 순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메타산업 집중 육성

### 내년부터 서남권 허브센터·전남 지원센터 동시 개설·운영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25년부터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와 전남 메타버스티켓센터 동시 운영해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는 초고속·초저지연 실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며, 전남 메타버스티켓센터는 지역 특화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전남을 글로벌 메타버스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올해 말까지 나주에 거점을 구축하게 된다. 허브센터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메타버스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서남권 지역 내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 최적화 및 고도화 지원 ▲초고속·초저지연 데이터 통신과 엣지 컴퓨팅 기술(MEC) 등을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과 실증 환경 지원 등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 메타버스티켓센터는 지역 메타버스 지원센터 13개 센터 중 유일하게 2개의 거점센터(나

주, 순천)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전력과 생태환경 산업을 특화하여 메타버스 기술과 지역 산업의 융합을 실현하고 있다.

나주 거점은 상용화 전진기지로 실증 장비활용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순천 거점은 교육 전진기지로 임주 공간, 교육실 등을 마련해 메타버스 체험교육,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두 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독창적인 콘텐츠와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 지역에 메타버스 관련 인력양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을 메타버스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인용 진흥원장은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와 전남 메타버스티켓센터의 협력을 통해 나누는 단순히 지역 산업의 중심지가 아니라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청년 떠나는 지역, 혁신적 인재 위한 일자리 창출 필요"

### 광주상의 광주경제포럼 세미나 마강래 교수 '혁신·일자리...' 강의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메가트렌드 속에서, 트렌드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6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 273차 광주경제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세미나는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지역혁신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광주·전남지역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도시의 행복 역설', '이 시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 '청년들에게 네트워킹이란?', '혁신네트워킹 공간만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마 교수는 가장 처음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 데이터를 제시했다.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향후 2040년까지의 장래인구 추계 등의 데이터를 근거로 점점 증가하는 청년 인구 이동 비중에 대해 '청년들이 행복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 인구의 지역 이탈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현상에 대한 지표와 지



역 행복도 지표는 전반적으로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등 거대한 도시가 지방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강의의 핵심으로 강조한 현대 사회의 3가지 메가 트렌드, '산업구조 변화(4차 산업혁명)', '공간구조의 변화(수도권 집중현상)', '인구구조 변화(저출생·고령화)'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발생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회 흐름 속

에서 물리적 자산보다 인적 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혁신 인재 채용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 교수는 "넓게는 지역 발전, 좁게는 각자의 기업이 순항하기 위해 혁신적인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청년들이 원하는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노동소득 43세 정점, 61세부터 적자 전환

### 적자 재진입 연령대 늦춰져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43세 때 노동소득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61세부터 다시 적자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 간 관계를 연령변화에 초점을 두고,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생애주기별 국민들은 17세 때 4078만원으로 생애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43세에 1753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한다. 이후 경제활동 일선에서 은퇴하는 61세에 다시 적자 전환하는 '적자→흑자→적자' 순으로 3단계 구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진입 연령은 지난 2010-2022년 13년간 27-28세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과거와 현재 모두 대학 졸업, 취업 등 노동소득이 발생하는 연령이 일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적자 재진입 연령대는 56세(2010년)→58세(2015년)→61세(2022년) 등 지속적으로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들이 경제활동 일선에서 물러나는 은퇴 시기가 점점 늦춰졌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소비는 17세에 41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노동소득은 17세 이후 점점 증가해 43세에 4290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한 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코트라 디지털 무역거점

### 종합지원센터 '광주 텍스터' 조선대 첨단캠퍼스에 개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우수 중소기업 수출지원 거점인 디지털 무역 종합지원센터(deXter·텍스터) 개소식이 26일 광주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에서 열렸다.

광주 텍스터는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에 전국 13번째로 설치됐으며, 광주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품 사진 촬영부터 코트라 플랫폼 바이코리아 상품 등록까지 지원한다.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기업 매칭 상담도 제공하며 취·창업생과 기업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케팅 교육도 한다.

조선대는 텍스터를 통해 지역 기업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도시 캠퍼스를 구축한



김춘성 조선대 총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광주 텍스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조선대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바라고 있다"며 "첨단산학캠퍼스가 지역 기업의 성장과 창업 지원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소식에는 김 총장과 최철용 산학협력부단장,

주기남 첨단산학캠퍼스 본부장, KOTRA 이금하 기획조정실장 겸 DX추진실장, 윤정혁 광주전남 지원단장, 전승일 라피네제이 대표 겸 광주화장품 산업진흥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내년부터 3t 미만 어선도 선원 보험 가입해야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의 산재보험으로, 어선에서 근무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어선원의 재해를 보상하고 선주의 과중한 재해보상 비용을 보험료의

형태로 분산해 어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 보험이다.

어선 톤급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방비도 별도로 지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t 미만 어선은 어선원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므로 해당 어선 소유자는 수협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연합뉴스

### 티웨이항공 기장·정비사 등 채용

티웨이항공은 다음 달 4일까지 B737 항공기 경력 운항승무원(기장)과 일반직(신입), 정비사(신입 및 경력)를 공개 채용한다.

일반직 신입사원 모집 대상은 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로, 공항지점을 포함한 현장 및 지원 부서로 배치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0.36 (-13.98)
↓ 코스닥	693.15 (-3.68)
금리(국고채 3년)	2.773 (0.000)
↓ 환율(USD)	1399.25 (-2.95)